



정치 > 청와대

중국 대사 장하성·일본 대사 남관표 '유력'

주오스트리아 대사 이상철 거론

(서울=뉴스1) 김현철 기자, 조소영 기자 | 2019-03-01 10:59 송고



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2018.11.6 김명섭 기자

신임 주(駐)일본 한국대사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,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으로 비어있는 주중국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청와대는 대사 인사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표할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.

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수훈 주일 대사 후임으로 남 전 차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최근 초계기 갈등,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.

남 전 차장은 일본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. 외교부 '재팬스쿨' 조세영 국립외교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.

주중 대사에는 장 전 실장이 거론된다.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었지만 지난해 11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물러났다. 하지만 비(非) 외교 전문가에게 4강대사 중 하나를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도 있다.

주오스트리아 대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상철 전 안보실 1차장 유력해 보인다. 이 전 차장은 국방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의 이력으로 안보실 1차장에 발탁됐다가 전날(2월29일) 인사 때 물러났다.

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"두 분(이 전 차장과 남 전 차장) 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헌신한 분들"이라며 "문재인 정부 하에서 계속 크게 쓰일 것으로 안다"고 말한 바 있다.

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러 대사도 교체 가능성이 흘러 나온다. 빈 자리에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.

김 대변인은 "대사 인사는 추후에 외교부에서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"고 말했다.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